



〈올림픽 D-3〉 “1.5t 비누 기마상으로 역사조망”

신미경 작가, 런던 중심가서 ‘비누로 새기다’ 프로젝트

(런던=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이지요. 유물이 현대미술로 변하는 과정을 어떻게 조망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한국 작가가 만든 작품으로 무려 1.5t에 달하는 초대형 비누 기마상이 23일(현지시간) 올림픽 개막을 앞둔 런던 중심가 캐빈디시 스퀘어에 설치됐다.

‘비누 조각가’로 유명한 신미경(45) 작가는 이날 캐빈디시 스퀘어에서 열린 ‘비누로 새기다: 좌대 프로젝트(Written In Soap: A Plinth Project) 오프닝 행사에서 대형 비누 기마상 조각을 공개했다.

이 조각은 캐빈디시 스퀘어 가운데의 빈 좌대 위에 올려졌다. 좌대 위에는 1770년 컴벌랜드 공작의 기마상이 세워졌지만 1868년 철거돼 공간이 빈 채로 방치됐다.

런던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신 작가는 “우연히 이 좌대 공간이 빈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곳에 비누 기마상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신 작가의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해 지원에 나섰고 현 치오브베니스 갤러리가 후원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비누는 러시 코스메틱스가 기증했다.

하지만 작업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원 기마상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다 조각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기마상을 자세하게 묘사한 그림이 없었어요. 예칭 기법으로 기마상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을 겨우 발견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300-400kg 규모의 비누 조각상은 만들어봤지만 1.5t이나 되는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신 작가는 흙으로 조각상을 먼저 만들고 나서 실리콘 등으로 주형을 땄다. 크레인을 동원해 끓는 비누를 한 번에 붓는 고난도의 작업을 거쳤다.

기마상은 1년간 전시된 뒤 실내로 옮겨진다. 작품은 전시되는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풍화한다.

신 작가는 “비누 조각은 야외에서 1-2년만 지나면 천 년 된 돌조각 같은 느낌을 준다”며 “실내로 이동한 뒤에는 풍화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시간이 정지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마상이 사라진 뒤 사람들은 이곳에 기마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게 됐다"며 "하지만 내가 이 조각상을 세웠다가 치우면 사람들은 조각상의 존재를 새롭게 느끼게 될 것이다. 비누 조각상이 내려진 후 좌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조소과 대학원을 졸업한 신 작가는 런던 슬레이드 스쿨에서 예술 석사학위를 받았다. 16년째 런던에서 활동하는 중이며 서양 고전 돌조각을 비누로 재현하는 작업으로 유명하다.

신 작가는 "비누는 존재하지만 동시에 사라지는 재료"라며 "비누 조각을 통해 고전 돌조각의 시간성과 정체성을 질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올림픽 기간에는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비누 도자기 38점을 전시한다. 또 10월 대만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곳에서 한국전쟁참전기념비 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7-24 07:11

송고